

성김대건 안드레아와
정하상 바오로와
동료순교자 대축일

화 답 송

시편 126(125), 1-2ㄴ . 2ㄴ-3. 4-5. 6

(후렴) 눈 물 로 씨 뿌 리 던 사 람 들, 환 호 하 며 거 두 리 라.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 실 때,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 - 였 네.
2. 그 때 민족들이 말 하 였 - 네. "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 셧 구 나."
3. 주님, 저희의 귀양살이, 눈물로 환호하며 거 두 리 라.
네 집 땅 시냇물처럼 되 돌 리 소 서. 씨 뿌 리 던 사 람 들,

그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 - 치 고,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 네.
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 셧 기 에, 우리는 기뻐 하 - 였 네.
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 - 람 들,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 아 오리 라.

알 렐 루 야

(후렴)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

그리스도의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 하리니, 하느님의 성-령-이 너희 위에 계시 리-라.
이름 때문에 머물러